

국정감사 2주차...추미애·옵티머스·박원순·부동산쟁점

법무부 국감 추미애 출석...거짓말 공방 예고

금융위선 사모펀드 공방...투자사 대표 출석

2주째에 접어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연휴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뒤 12일부터 다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다시 '추미애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감

에는 추 장관이 출석한다.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당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거짓말을 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같은 날 열리는 정부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금융위 국감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 판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따져묻고 불안한 판매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상온에 노출돼 실효성 논란이 인 독감백신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독감백신의 품질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 성폭력 등 가혹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펜스' 출석 여부로 논란이 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국감도 이날 예정돼 있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EBS 인기 캐릭터 펜스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6일 펜스 측은 "캐릭터의 신비감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16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부동산 책임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김 장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5·6기 지도부 임명식에서 김종철 신임 대표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체)

'정의당 시즌2' 개막

김종철 신임 대표 "대선 승리 만들겠다"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는 11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중앙에서 저 신임 대표 김종철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열의를 모아 승리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6기 지도부 대표단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대해주시는 대로 꼭 노회찬, 심상정에 버금가는 그리고 그 뒤를 뛰어넘는 6기 대표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시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며 "민주당도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김 대표께서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세대연대를 통해서

능히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멋진 '팀 정의당'을 완성시켜줄 것"이라며 "앞 내 주요 정당 중 최초로 70년생이 대표가 된다. 정의당의 세대교체를 넘어서 낡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선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6기 지도부가 정의당 시즌 2를 과감하게 열어가기를 바란다"며 "제난의 시대,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거침없이 주도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세습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진보 정당의 도약을 만드는 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독자 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새롭게 발족한 정의당의 6기 신임 지도부는 원외인사인 김 대표를 포함해 김윤기·김응호·박인숙·배복주·송치용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선거의 계절' 앞당긴 김종인...원희룡·유승민 분주·김무성도 입김

국민의힘, 재보궐 준비 체제 오늘 조기 돌입 '군불빼기' 원희룡, 최근 김종인과 회동...유승민, 여의도 복귀 준비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준비체제를 조기 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의 계절을 앞당기자 선거에 나갈 후보군도 물품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12일부터 내년 재보궐선거 대비 경선 준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체계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재보궐 선거에 나갈 '선수'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체급이 높은 대권 후보도 가르마를 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통상 선거에선 여당이 먼저 출마 후보를 확정지은 다음 야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차별화 전략을 펼치는 데 비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보궐 선거 기획단을 조기에 띄우기로 해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는 늦어도 연말에는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관련 포인트는 김 위원장이 재보궐 선거에 나갈 기대주로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다.

국민의힘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김 중진 비대위원장이 낙점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핵심 인사는 "김 위원장이 추석 연휴기간 거의 집에서 쉬지 않았다"며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차기 대선이나 재보궐 선거에 세울 인물을 직접 접촉하고 일종의 사전 면접을 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주축이 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에 참석해 일종의 공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선이나 시장 후보로 '인물의 참신함'을 중시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에서도 특히 초선 의원들에게 서울·부산 시장 선거 출마를 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역 의원이 차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으나, 김무성 전 대표는 현역 의원 차출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3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100석 마지노선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시점에 현역을 재보궐 선거로 내보내는 전략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김 전 대표의 충고를 공천 전략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아직은 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 않다. 현역이 나가면 의원 선거를 새로 해야 하니 (원외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가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5·6기 지도부 임명식에서 김종철 신임 대표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체)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알려졌다. 단순히 추석 명절 인사 차례보다는 대선 전략이나 후보 선정 절차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4·15 총선 후 두문불출하다 시피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여의도 정거장에서 이틀이 자주 오 르내린다. 유 전 의원은 옛 바른정당 당사가 위치했던 여의도 한 건물에 사무실 입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대선캠프를 가동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황교안 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한 소식도 전해지면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차기 대선이나 시장 선거는 아니지만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의욕을 보이는 원외인사들도 있다. 지난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 원외인사는 당원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보궐 선거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영남의 한 원외인사도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며 재보궐 선거 준비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

